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림전남지역본부장은 7일 오후 5시 본부실에서 열린 CEO운영협의회를 주재한다.



박태선 농림전남지역본부장은 7일 오전 11시30분 본부 회의실에서 완도해조류박람회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광주경총, 내일 정기총회

노사협력대상 '해양도시가스'

광주경영자총협회 오는 8일 오전 11시 광주 신항파크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15대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광주경총이 제정한 노사협력대상(18회)은 해양도시가스가 수상하며 노사협력 유공자 시상과 금요조찬포럼 후원 회원사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한다.

/황애란 기자

예비 창업자 맞춤형 지원

광주창조센터, 오늘 통합설명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는 정부부처, 사업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2017년도 정부창업지원사업(K-startup)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존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설명회는 창업 희망자, 초기 스타트업, 성장벤처, 증권벤처, 액셀레이터 등 창업·벤처 분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각 부처별 대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일정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성장단계 및 지원 분야에 따른 각 수요 기업들에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별 상담부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대한항공, 보잉 787-9 도입 기념

온라인 이벤트 실시

대한항공이 보잉 787-9 차세대 항공기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여 '꿈의 비행 787' 마이크로사이트(787.koreanair.com) 오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픈한 '꿈의 비행 787' 마이크로사이트는 보다 안전한 여행이 가능한 보잉 787-9의 특징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돼 있다. 대한항공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보잉 787-9의 부품 제작 과정 또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나만의 787 디자인' 이벤트는 마이크로사이트에 접속,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업로드해 항공기를 디자인 한 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본인이 제작한 디자인으로 래핑 된 보잉 787-9 모형 항공기를 증정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SNS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탑승 후 787의 첫 숫자인 '7' 제스처와 함께 인스타그램을 찍고 '#대한항공', '#꿈의비행787' 해시태그와 함께 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보잉 787-9 모형 항공기를 증정한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보잉 787-9 항공기를 투입하며 2019년까지 총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노동시장 활기를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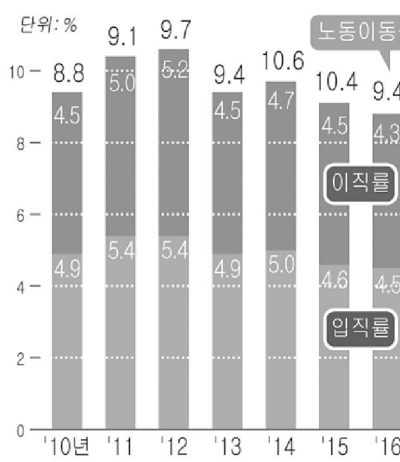
'안 뽑고 안 옮기고' 노동이동을 최저치 '버티기' 직장인... '불만 많아도 사표 NO' 고용시장 정체... "올해 하반기 개선여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활기를 잃었다. 경기 둔화가 깊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직장이 불만족스러워도 딱딱히 옮길 곳이 없어서 버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입직·이직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신규·경력 채용자, 복직·전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입직률은 지난해 4.5%였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노동인구 유입이 활발할수록 입직률이 높는데, 이 수치는 2011~2012년 5.4%였으나 2014년 5.0%, 2015년 4.6%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리해고 당하거나 사직, 퇴직한 사람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이직률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3%로 역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입직률과 이직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색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입직률이 낮은 것은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아서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9만9,000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노동이동률과 이직자 추이



세(-0.1%)로 돌아섰다.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아예 단념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도 44만8,000명이었다. 이직률이 줄어든 것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급방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망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1만 4,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비자발적 이직자 수는 2012년(35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버티'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직률이 떨어졌다. 지난해 근로여건 불만족·육아·건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0만2,000명으로 1년 세 3만2,000명 감소했다. 이직할 자리가 적을뿐더러 이직한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보장이 낮고, 특히나 옮겨서 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근로자는 숨속이다 보니 노동시장이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해 산출하는 노동이동률은 지난해 8.8%에 불과했다. 역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해성산업개발(주) 이연풍 대표 철탑산업 훈장

해성산업개발(주) 이연풍 대표이사가 최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294명을 비롯해 세정협조자(68명), 유공공무원(200명), 우수기관(8개) 등 포상대상자와 정부관계자, 수상자 가족 등 1,1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가산업훈장 13명 중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장, 해성산업개발 및 해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연풍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부침을 겪어오며 성실한 납세, 나눔경영실천, 건설산업제도 및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을 인정 받았다.

제된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열악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윤리경영과 성실경영 및 성실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모범납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연풍 대표이사는 "성실납세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의무인데 이번 철탑산업훈장은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 들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행사는 매년 3월 3일에 치러지며, 성실납세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모범납세자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포상 등 우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우항리 공룡화석 애니메이션 개발

전남진흥원, 해남군과 기업 협약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장렬)이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남진흥원과 해남군(권한대행 유영길), 콘텐츠 제작기업 ㈜도나리(대표 이동기)와 ㈜캐릭터플랜(대표 양지혜)는 6일 해남군청 상형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특화 애니메이션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산업 진흥 및 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추진 ▲지역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홍보 협력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정보공



전남진흥원과 해남군, 콘텐츠 제작기업 ㈜도나리와 ㈜캐릭터플랜은 6일 해남군청 상형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해남 공룡화석 유적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콘텐츠와 놀이체험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진흥원 관계자는 "해남 우항리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룡발자국이 발견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역에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aT, 중남미 시장 개척 앞장

멕시코 식품박람회 한국관 12개사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멕시코에서 한국식품 중남미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aT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중남미 최대 국제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2017 멕시코 식품박람회 (Expo Antad & Alimentaria Mexico)' 장에 한국식품과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멕시코 식품박람회에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세계 45개국에서 약 2,400개 업체와 중남미 식품유통업 종사자, 주요 레스토랑 체인 요리사 등이 참가한다. 한국관에는 라면, 소스, 음료 등을 수출하는 국내식품기업 12개 사가 참가해 중남미 식품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다.

aT는 식문화 홍보관을 통해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불고기 타코(또피아에 싸 먹는 멕시코 요리), 치즈라면 등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는 지난해 음료, 면류, 과자류를 비롯한 한국산 가공 농식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남미 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의 경우는 지난 2016년에 전년 대비 20.1% 증가한 2760만 달러(약 319억 원)의 한국산 농수산식품이 수출되면서 선제적 공략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부장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노란우산공제 부금 6조1천억원 돌파

소상공인 경영 악화·노후준비 부담 반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노란우산공제 제 누적가입자 88만명, 누적부금 6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소상공인 19만 5,000명이 가입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0%가 증가한 1만5,512명이 가입했다. 또 지난해 기준 노란우산공제 대출금액은 2015년보다 37.7% 증가했다.

3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4만 2,500명이 가입했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불안감과 노후준비 부담이 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2013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소상공인은 30.9%에 불과했다. 폐업 혹은 은퇴 준비가 된 소상공인은 32.3%에 불과했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부금은 가입자 되지 않는다. 폐업·사망시 복리 이자율을 가산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소득 70% 수준에 불과하고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를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시흥은행, 또는 전국 대표전화 1666-9988이나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상담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전남 발전 동력 산림산업 육성 공감대 형성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연수 특강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제주도 서귀포KAL 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국내연수회 특강에서 섬 지역 개발과 산림산업, 산림문화 육성을 통한 전남발전을 주장했다. 이석형 회장은 대한민국 섬 지역 6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도서 지역 산림환경 개발과 전체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연수회에 참석한 의장단의 공감대를 얻었다. 함평군의 3선 군수를 지낸 이석형 회장은 지금까지 500여회 이상 '블루오션과 창조경영'을 주제로 전국적인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산림조합중앙회장 취임 이후에도 활발한 특강 활동으로 산림산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제주도 서귀포KAL 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국내연수회 특강을 실시했다.

업의 중요성과 산림문화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임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임업지원제 도입,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등 임업분야의 누적된 과제 해결에 매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망 개선과 소비 모델 개발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지역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고품질 우량 묘목을 엄선해 판매하는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기열)는 지역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고품질 우량 묘목을 엄선해 판매하는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장에서 심기 좋은 매화, 대추, 감,

모과, 살구, 자두, 앵두 나무 등과 같은 유실수와 단풍나무, 금(은)목서, 주목, 반송, 산대화, 명자나무, 회양목 등 잎을 보는 관상수, 장미, 철쭉, 복련 등 꽃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구비돼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광주 관산구 북문대로 663번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건물 옆 1만4,080㎡ 부지에 설치돼 있다.

/황애란 기자